"손자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생겨 기쁘다"

NH꿈틀봉사단 청소년 공부방 선물봉사

"쌍둥이 손자가 나란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네요. 아이들도 집에 오면 깜짝 놀랄 듯 하네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손자를 키우는 박승선(78)씨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직원들로 구성된 제주농협 NH꿈틀봉사단과 N돌핀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등 10여명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미뤘던 청소년 꿈 지원 공부방 선물봉사에 나섰다. 봉사단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부방 선물봉사는 16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더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첫 봉사로 박 할머니와 쌍둥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조손가정을 방문해 공부방 선물봉사를 실시했다.

NH꿈틀봉사단은 '꿈이 자라나는 틀(공부방)을 만들어 주다'라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공부방 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이 필요한 책상, 의자, 책장 등 지원은 물론 다른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배, 장판교체, 커튼설치 등 환경정비 봉사도 펼치고 있다.

김승룡 꿈틀봉사 단장은 "많은 직원들이 모금에 참여해줘 3년 전부터 매년 10가구 이상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도움이 아닌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봉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혈액원 고교 헌혈유공자 표창장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은 지난 17일 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최범윤)에서 3학년 김진아 학생에게 고교 헌혈유공자 143명을 대표해 표창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진아 학생은 지난 2018년 학교를 찾은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시작한 이후 30회를 목표로 헌혈에 참여했다. 올해 목표 횟수를 달성해 제주혈액원으로부터 헌혈유공자 은장을 받게 됐다.

고교생 헌혈유공자 표창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 7회 이상의 헌혈에 참여해준 학생에게 주어지는 제주혈액원장의 포상이다. 헌혈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도내 고교의 헌혈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노형중 RCY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9일 노형중 RCY(지도교사 류창식) 단원과 제주대학교 RCY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단원들은 초코칩쿠키 300개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에 전달했다. 또 적십자 인도주의 강사의 VR장비를 활용한 '재난에 대해 알아볼까요?'를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았다.

노형중학교 2학년 홍지아 학생은 "직접 빵을 만들고 VR 체험을 할 수 있어 재밌었다"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제주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쌀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354-G 뉴제주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형)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사랑의 쌀 400kg을 기탁했다. 적십자사는 사랑나눔봉사회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형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농조합 산새미 이웃사랑 물품 기탁

영농조합법인 산새미(대표 이정순)는 지난 16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말뼈환 50세트(330만원 상당)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정순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의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서귀포지회 세대공감 콘서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회장 강창익)는 지난 18일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 체육관에서 노인회지회 임원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공감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콘서트는 노인들과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4·3에 대한 강연과 학생들의 장기 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오경규 교장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한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가 끝나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원연합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제주도문화원연합회(회장 강명언)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영주음사(이사장 송인주)가 공동 주관한 제2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에서 장원 허갑문(경남)씨, 차상 1인 채진배(제주)씨, 차하 1인 조삼승(대구)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영주십경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魚)를 시제로 전국 한시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570여 수가 응모됐다. 심사 결과 장원·차상·차하 각 1인 외에 참방 15인, 가작 30인이 뽑혔다.

동정

정의향교 추기석전대제 관계자 격려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21일 정의향교에서 열린 '정의향교 공기 2571년 추기석전대제'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2일 제주시 아라동 관내에서 실시되는 '아라동새마을부녀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할 예정.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참석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24일 제주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

김춘오 제48대 제주교도소장 취임

제48대 제주교도소장에 김춘오 소장이 21일 취임했다.

김춘오 신임 제주교도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업무 특성 상 집단 수용시설 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효율적인 교정·교화 업무 수행, 수용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수용자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오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33기로 임관해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광주교도소 총무과장을 거쳐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 해남교도소장, 순천교도소장, 홍성교도소장, 목포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홍삼 대표 철탑산업훈장 받아

김홍삼(사진) 보타리에너지(주)대표이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에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추천으로, 지역혁신성장 부문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은 지역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부문에서 매년 각각 발굴, 포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관련업계에서 30여년간 종사하면서 열악한 지역 제조업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지역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시설에 투자를 지속해 전기차충전인프라, 태양광전지제조 및 도소매,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혁신산업 청정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